

2024학년도 수시 모의논술고사

논술고사 문제지 (인문계열 II)

소속고교		수험번호		성명	
------	--	------	--	----	--

◆ 유의 사항 ◆

1. 시험 시간은 100분임.
2. 답안은 검은색 펜이나 연필로 작성할 것.
3. 학교명, 성명 등 자신의 신상에 관련된 사항을 답안에는 드러내지 말 것.
4. 연습은 문제지 여백을 이용할 것.
5. 답안은 해당 문항 답안지에만 작성할 것.

감독확인



이화여자대학교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시민들은 결국 행복하게 되었다는 굴욕감과 그럼에도 대다수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안도감, 그리고 시민 여섯 명이 스스로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는 자괴감 등으로 피 같은 눈물을 흘렸다. 패자의 운명은 이렇듯 야속하고 수치스럽기 그지없는 것이었다. 모두가 절망감에 빠져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순간, 외스타슈라는 노인이 앞으로 나섰다.

“내가 죽으러 가겠소. 자, 우리 자원해서 희생합시다. 우리는 싸움에 져서 행복했을 뿐이지 우리의 열과 닢마저 내어 준 것은 아니요. 제비뽑기 같은 것을 해서 희생자를 뽑는다면 그 구차함에 후손들에게도 부끄러울 것이요. 우리 당당하게 죽읍시다. 자원할 사람은 앞으로 나오시오.”

외스타슈는 칼레에서 가장 부유하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가 이렇듯 제일 먼저 자신이 희생하겠다고 나서자, 다른 지도층 인사들도 다투어 나섰다. 그렇게 여섯 명이 채워졌고 이들은 눈물을 흘리며 송별하는 시민들을 뒤로한 채, 시장 광장에서 에드워드의 진지를 향해 나아갔다.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슬픔과 절망감에 싸여 통곡하며 그들의 이름을 불렀다.

[나] 어느 사회에나 불평등은 존재한다. 심지어 가장 단순한 수렵·채집 무리에도 덩치가 더 크거나, 힘이 더 세거나 또는 더 똑똑한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다. 또 한 가지 사실은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권력을 지닌다는 것이다. 이들은 권력이 약한 사람들보다 남의 행동에 더 큰 권력을 행사한다. 일부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부(富)를 축적하고 일부는 남보다 더 높은 지위와 존경을 누린다. 그러나 그 불평등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의식이 사회마다 같은 것은 아니다. 어떤 사회에서는 권력의 불평등을 당연시하는가 하면, 어떤 사회에서는 인간적인 평등을 소중히 여긴다. (중략)

1809년 스웨덴 귀족들은 평화 혁명을 통해 국왕을 교체하였다. 이후 새로 취임한 국왕은 프랑스의 나폴레옹 아래에서 복무했던 베르나도트 장군이였다. 베르나도트는 스웨덴 국회에서 스웨덴 말로 취임 연설을 하였는데, 그가 스웨덴 말을 더듬거리는 것을 보고 청중들은 크게 웃으며 떠들어 댔다. (중략)

이전까지 베르나도트가 살아왔던 프랑스, 특히 프랑스의 군대에서는 상관의 실수에 부하가 웃는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스웨덴에서는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라고 할 수 있는 국왕에 대해서 그다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스웨덴과 노르웨이의 평등주의적인 사고방식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후 1844년까지 아주 존경받는 입헌 군주로 스웨덴을 잘 다스렸다. (중략)

일반적으로 ‘리더십’을 다루는 책들은 리더십이 ‘복종 정신’이 있어야 발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종종 잊고 리더십을 지도자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려고 한다. 그러나 권위는 복종이 따라 주어야 유지되는 것이다. 베르나도트의 문화 충격은 그에게 리더십이 없어서 생긴 문제가 아니었다. 베르나도트는 프랑스인이었으나 그가 다스려야 할 백성은 스웨덴 국민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스웨덴 국민들의 존대 개념은 프랑스인의 존대 개념과는 달랐다. 리더십 가치에 관한 국가 간 비교 연구는 국가 간의 차이가 지도자와 추종자 양자의 마음에 존재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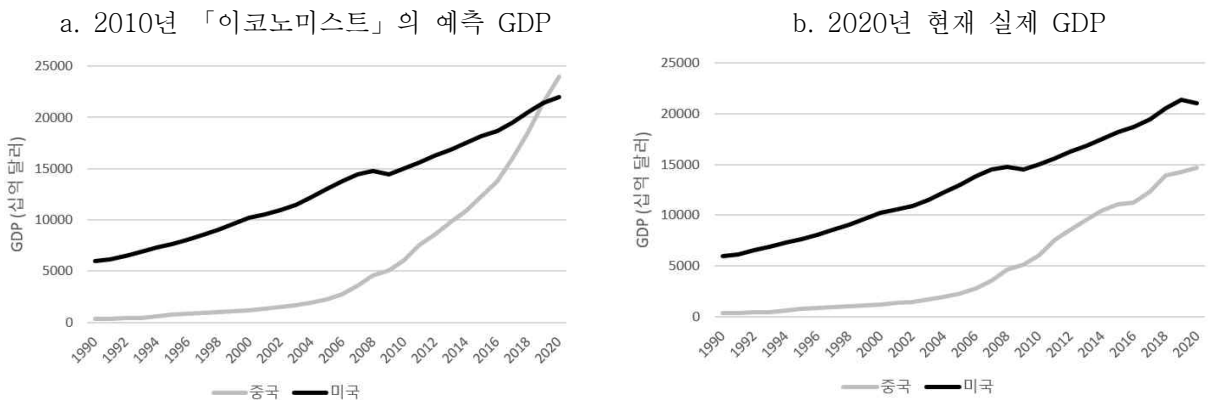
[다] 미국에서는 노예 제도가 폐지된 후에도 흑인에 대한 차별을 지속하였다. 특히 남부 지역에서 인종 차별 문제가 심각했는데, 이러한 차별은 1870년대부터 1960년대 초까지 시행된 소위 「짐 크로(Jim Crow)법」이라고 불리는 법들에 의해 정당화되었다. 「짐 크로법」은 공공 기관 등에서 인종을 분리하여 흑인을 합법적으로 차별할 수 있게 한 여러 가지 법들을 가리킨다. ‘짐 크로’는 어리숙한 흑인을 희화화한 쇼에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으로부터 유래했다. 인종 분리와 차별을 제도화한 법들로 인해 흑인은 백인과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없었고, 선거에 참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버스나 화장실 등 일상생활 공간에서조차 차별을 받았다.

흑인들은 「짐 크로법」에 따른 통치에 저항하였다. 1896년 호머 플래시(Plessy, H.)는 열차의 백인 차량에 탑승하여 흑인 차량으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거부하였다.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인종을 분리하고 차별하는 법이 연방 대법원의 심사를 받게 되었지만, 연방 대법원은 ‘분리하되, 평등하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림

으로써 차별을 정당화하였다.

하지만 흑인들뿐 아니라 다수의 백인들도 미국의 관할권에 속한 모든 사람은 미국의 시민이며, 피부색에 의해 투표권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헌법의 정신이 구현되기를 바라며 지속해서 인종 차별 반대 운동을 벌였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미국에서는 1964년 「시민권법」, 1965년 「투표권법」이 제정되었고, 「짐 크로법」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인종 차별을 금지하는 법은 흑인의 정치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미국의 민주주의가 한층 발달하는 데 이바지하였다.

[라] 아래의 그림은 중국과 미국의 GDP 규모 변화에 대한 예측과 실체를 보여준다. 그림 a는 세계적인 시사·경제 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가 2010년에 예측한 미국과 중국의 GDP이다. 「이코노미스트」는 미·중의 GDP가 과거 10년간의 연평균 성장률, 즉 중국 10.5%, 미국 1.75%로 성장해간다면 중국은 2019년 미국을 제치고 세계 경제의 리더로 급부상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2021년 세계은행(World Bank)이 제공한 2020년까지의 실제 GDP 규모는 그림 b처럼 여전히 미·중 사이에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



[그림] 1990년부터 2020년까지의 GDP 예측과 실제(출처: 「이코노미스트」, 세계은행)

[마] 투자의 세계 자체가 끊임없이 변화하는데 과거 데이터에서 찾아낸 패턴에 의존하는 것은 사실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아무리 뛰어난 주가 예측 모델도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게 바로 ‘귀뚜라미의 한계’다. 귀뚜라미의 울음소리와 대기 온도 간에는 거의 완벽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밤이 되어 기온이 떨어지면 귀뚜라미의 울음소리는 느려진다. 20도에서 18도로, 다시 16도, 14도로 떨어질수록 울음소리는 점점 느려지는데,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계속 느려지는가 하면 그건 아니다. 밤 기온이 더 떨어져 섭씨 10도 아래로 내려가면 귀뚜라미는 날개를 접어버리고 아예 울음소리를 내지 않는다. 어느 순간 상관관계가 갑자기 사라져 버리는 것이다. (중략)

『작지만 강한 기업에 투자하라』는 저서로 잘 알려진 랄프 웨저는 자신이 운용하는 에이콘 펀드 산하에 ‘은유검증위원회’를 만들었다. 이곳에서 하는 일이란 “지금 주식시장은 1995년 폐소화 위기 때와 똑같다”든가 “이 종목은 제2의 인텔이 될 만한 주식”처럼 은유적 표현을 찾아내 피도 눈물도 없이 보고서에서 삭제해버리는 것이다. 오늘 죽는 사람들 모두는 어제까지 한 번도 죽지 않은 사람들이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틀리지 않은 패턴이라 해도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1 제시문 [가] ~ [다]를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40점]

- (1)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에 나타난 지도자가 가져야 할 태도를 비교하시오. [20점]
- (2) 제시문 [나]의 불평등에 대한 관점에서 제시문 [다]의 「짐 크로법」에 대해 논하시오. [20점]

2

제시문 [마]의 두 가지 사례를 바탕으로 제시문 [라]에 나타난 예측과 실제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30점]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I] 15세 이상의 인구를 노동가능인구로 간주하는데, 노동가능인구는 일할 의사에 따라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된다. 경제활동인구는 다시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분되는데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가지지 못한 사람을 실업자라고 한다. 따라서 경제적 의미에서 실업자란 단순히 일하지 않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데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1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일할 능력이나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으로 학생이나 전업주부 등이 포함된다.

노동시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고용지표가 활용된다. 경제활동참가율은 노동가능인구 중에서 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이는 노동시장의 상황을 파악하고 정부가 고용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는 지표이다.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현재 경제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다. 예를 들어 경기가 호황일 때는 실업률이 낮아지고 불황일 때는 실업률이 높아지므로, 실업률을 통해 경기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반복된 구직 실패나 학업 지속 등으로 일자리를 구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경제활동인구가 줄어 실업률이 낮아지게 되므로 경기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노동가능인구 대비 취업자 수의 비율인 고용률을 실업률과 함께 발표한다. 고용률은 경제활동인구 변동에 따른 실업률의 경제 상황 왜곡을 보완하는 데 사용된다.

[II] 허생(許生)은 묵적동(墨積洞)에 살았다. 남산 밑으로 곧바로 가다 보면 우물이 하나 있는데, 그 곁에는 오래된 은행나무가 한 그루 서 있다. 허생의 집 싸리문은 그 은행나무를 향하여 열려 있다. 집이라야 비바람을 채 가리지 못할 작은 초가집에 불과했다. 그러나 허생은 오직 책 읽기만 좋아할 뿐이어서, 그 아내가 샴바느질을 함으로써 간신히 입에 풀칠을 하는 지경이었다. 어느 날 허생의 아내는 너무 배가 고파서 울면서 말했다. “당신은 평생에 과거도 보지 않으면서, 책을 읽어 무엇에 쓰시려요?” 허생이 웃으며 말하기를, “나의 독서는 아직 미숙하오.” 아내가 묻기를, “공장(工匠) 노릇도 못한단 말입니까?” 허생이 말하기를, “공장 일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찌 할 수 있겠소.” 아내가 다시 묻기를, “그럼 장사치 노릇도 할 수 없단 말입니까?” 허생이 대답하기를, “장사치 노릇도 밑천이 없으니 어찌 할 수 있겠소.” 부인이 화를 내며 내쫓았다. “밤낮으로 글만 읽어도 배운 것이라곤 오직 ‘어찌 할 수 있겠소’뿐이구려. 공장 노릇도 못한다, 장사치 노릇도 못한다, 그러면 도둑질도 못한다 말시오?” 허생이 어쩔 수 없이 책을 덮고 일어섰다. “애석하구나! 내 본디 십 년 기한으로 책을 읽으려 했지만, 이제 겨우 칠 년에 이르렀을 뿐이구나.”

(1) [I]을 읽고 2020년 A국의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을 구하시오. [12점]

2020년 A국의 경제 상황

연령	15세 미만	15세 이상 20세 미만	20세 이상 65세 미만	65세 이상	총합
인구수	200	200	500	300	1200
경제활동인구	N.A.	150	400	170	720
비경제활동인구	N.A.	50	100	130	280
취업자	N.A.	135	373	140	648
실업자	N.A.	15	27	30	72

주: N.A.는 해당 수치가 없음을 의미한다.

(2) 2021년의 경제 상황에 대하여 경제학자 B씨는 “2020년에 비하여 고용 상황은 개선되었다.”라고 주장하였다. 경제학자 B씨의 주장에 대하여 [I]에서 설명한 실업률과 고용률에 기초하여 평가하시오. [12점]

2021년 A국의 경제 상황

연령	15세 미만	15세 이상 20세 미만	20세 이상 65세 미만	65세 이상	총합
인구수	200	200	500	300	1200
경제활동인구	N.A.	100	350	150	600
비경제활동인구	N.A.	100	150	150	400
취업자	N.A.	90	330	130	550
실업자	N.A.	10	20	20	50

주: N.A.는 해당 수치가 없음을 의미한다.

(3) [II]에 등장하는 허생의 고용 상황을 [I]에서 소개한 개념을 이용하여 설명하시오. [6점]